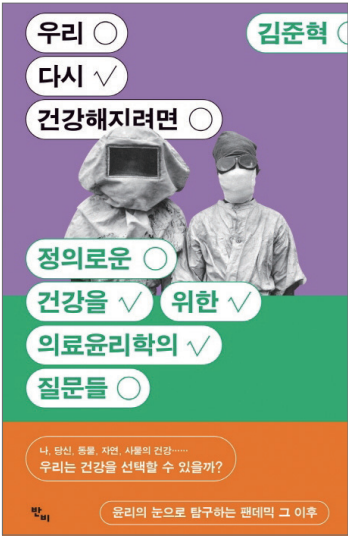


12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② 김준혁『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여러 의료윤리학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던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공공선, 심지어 인간과 비인간의 대립은 새로운 건강 개념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한다. (사진=언스플래쉬)



김준혁『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이러한 건강 개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이다. 건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의미하므로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건강의 구성 요소가 된다. 가령 하반신 마비 마라톤 선수의 경우, 앞의 두 건강 개념에 따르면 결코 건강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지만, 새로운 건강 개념에 따르면 건강하다고 평가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라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의 행동 자체가 그를 건강하다고 판단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보건정책도 기존의 보호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노력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노력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정책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적 여건은 개인의 노력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개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저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건강 개념은 개인의 노력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역시 건강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포함한다.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의해 폭로된 여러 의료윤리학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던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공공선, 자유와 강제, 심지어 인간과 비인간의 대립은 새로운 건강 개념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한다.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과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에게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드러낸 의료윤리학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이 질문에 아주 분명히 답하고 있다. 새로운 건강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새로운 건강을 사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 건강을 생각하고 실천하기



조 태 구  
교수 · 인문학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의철학 분야의 ‘전공 서적’을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즉각 김준혁의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을 떠올렸다. ‘전공 서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공 서적’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들을 다루는 어려운 책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책은 분명 ‘전공 서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팬데믹이 지나가 버린 다음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24쪽)

실제로 아직 상황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린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선언

된 지난 4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30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망각을 서늘하게 증명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0.17이라는 사실이 그것에 감염돼도 아프거나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확인된 누적 확진자 95.8%와 사망자 71.9%(5월 8일 기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도 아프거나 죽지 않았다는 듯이, 적어도 이런 아픔과 슬픔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일상으로의 회복은 준비됐고 실행됐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은 잊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도래한 질병은 그것이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곧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는 만큼 빠르게 잊혔다. 그렇게 2020년 8월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의사 파업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고, 의사 파업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의료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문제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제 사람들은 ‘뉴노멀’이라는 말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인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문제들을 폭로한 것이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은 K-방역, 마스크 쓰기, 의료자원, 재택 치료, 돌봄, 혐오, 학교 폐쇄, 장례, 감염병 연구, 동물과 환경, 의료 데이터 등 다양한 예를 통해 기존에 존재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의료윤리학적 문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이 문제들을 뒷받침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후견주의와 나아가 근대 의료가 전제하고 있는 온전하고 단일한 신체에 대한 환상, 궁극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문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새로운 건강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이라

는 책의 제목은 이미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저자가 언급하는 ‘건강’을 WHO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로 이해하거나, 보다 고전적인 정의에 따라 ‘질병의 부재 상태’로 이해한다면, 이 제목은 상당히 이상해 보일 뿐이다. 도대체 누가 ‘완전한 안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소한 질병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정의들에서 건강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엇으로 규정되고, 따라서 누구도 다시 건강해질 수 없으며, 사실 건강했던 적도 없다. 반면 저자가 책의 논의를 통해 확장시키고 있는 후버(Machteld Huber) 등이 주장한 건강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제목의 의미는 쉽게 이해된다. 여기서 건강은 ‘사회적, 신체적, 감정적 도전에 직면해 적응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적응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이미 건강한 것이다.